

“마음 속 평화의 씨앗 함께 키워요.” 통일부-법무부, 소년 교정시설에 평화공존의 메시지 전달

- 통일부-법무부 협력 통해 평화통일교육 확산 기반 마련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만델라 소년학교」에 컬러링북 전달
- 소년·여성·장애인 등 취약수형자 대상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시범 실시

□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5월 21일(목) 13:00,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 소년수형자들을 위한 2026 평화통일 그림동화 컬러링북 「씨앗 톡톡! 마음 쑹쑹!」* 50권과 교육기자재 전달식을 개최했다.

* 숲속 동물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평화의 나무'를 키워내며, 평화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음을 메시지로 전달

○ 이번 행사는 통일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소년수형자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양 부처는 이번 전달식을 기점으로, 전국 20개 교정기관에 컬러링북 총 1,000부와 교구재를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전달된 컬러링북은 소년·여성·장애인 등 취약수형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자료이다. 수형자들은 그림동화 체험형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메시지를 내재화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하반기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김천소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에서 취약수형자 대상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양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형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공동 추진하고, 이후 2027년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적용하여 정례 교육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 또한 안정적인 상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계 평화통일교육 강사 과정 개설을 추진하여 전문 강사로 적극 양성할 방침이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기념하여 “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수형자들이 평화통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교정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평화 감수성이 높아지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평화통일 컬러링북 교육과정이 소년수형자들의 마음 속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싹틔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수형자들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붙임 : 1. 컬러링북(씨앗 톡톡! 마음 쑹쑹!) 주요 장면

2. 전달식 사진(별도 송부)

담당 부서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	책임자	과 장	정지하 (02-901-7160)
		담당자	사무관	이병옥 (02-901-7162)
	법무부 사회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도곤 (02-2110-3418)
		담당자	사무관	강동원 (02-2110-3454)

책 표지	주요장면
	
	